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본입니다</b>
<b>배포일자</b>		2023년 5월 2일(수) 총 2매		
<b>담당 부서</b>	<b>아동정책과</b>	<b>담당자</b>	• 아동학대대응팀장 • 담당자	허지연 ☎440-3491 박현선 ☎440-3493
<b>사진(이미지)</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조치까지 대응방안 논의**  
- 2일,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 간담회' 개최 -  
- 일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인천시청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과 관련해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과 시, 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인천시 아동학대 대응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력 강화, 예방체계 구축,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둔다.

우선 시는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현재 57명에서 6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 피해장애아동쉼터(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위기아동 전수조사 확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제로(ZERO),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와 군·구가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여러모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동 안전은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이며, 인천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대응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와 군·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아동학대 예방,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